

영생을 목표삼고 가는 사람은 영생을 쟁취하고 맙니다

나라는 의식이 시키는 대로 행하면 모두 죄가 된다

나라는 의식이 시키는 대로 행하는 삶은 하나님의 힘을 약화시키고 마귀의 힘을 키우는 삶입니다

6천 년 묵은 마귀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우리 사람 속에 있습니다. 육천 년간 여러분 속에 있는 '나라는 의식'은 여러분들의 조상을 다 죽인 마귀이며 육천 년 동안 살아서 여러분들 속에서 숨어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이 세상 사람들이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나를 항상 버려라"하는 말씀이 씌어 있습니다. 일반 기독교에서는 나라를 것이 마귀요, 나라를 것이 선악과요, 나라를 것이 바로 죄 중의 죄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고 있는 사람을 장님이라고 하죠?

나라는 것이 바로 마귀요, 나라를 것이 선악과요, 죄 중의 죄인데, 죄가 어디에 있는 줄도 모르고 죄를 몰마시듯 하면서 매일 같이 죄를 지으면서도 죄를 안 짓는 척하고 살고 있는 것이 바로 멍청구립입니다.

전도관에서는 죄가 핏속에 있다고 말했죠? 그 말이 맞는 말이나 정확한 말씀을 전도관에서도 못 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보다는 조금 앞서 있죠? 사실 '나라는 주체의식'이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너희는 하나님 안에서 행하라"라고 했습니다. 즉 그것은 너희들은 마귀 안에서 행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마귀 안에서 행하고 있다는 것은 '나라는 주체의식'이 마귀가 되어 '나라는 주체의식'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고 있으므로 하나님이 답답하여 "하나님 안에서 행하라"는 말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행하라"는 말은 너희들은 마귀 안에서 행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말씀이 성경에 씌어 있는 것을 보고 좀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사람이 마귀 안에서 행하고 있다는 뜻이로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정상입니다.

구세주는 철장의 말씀으로 이단과 참진리를 분별해 주십니다

이 사람이 태어난 시간이 새벽 4시입니다. 그리고 별의 숫자인 28일에 태어났습니다. 별은 별인데 새벽별로 태어났으니까 새벽별은 밝은 별입니다. 그러니까 밝은 별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별이라는 이름을 지을 것을 하나님께서 내다보시고 성경에 예언을 해놓은 것입니다. 죽어가는 인생들을 살릴 구세주인데 그 구세주 이름이 성경에 없을 수가 없습니다. 구세주는 온 우주에서 하나밖에 없는 구세주이기 때문에 그 구세주의 이름은 반드시 성경에 씌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짝이 맞는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사야서 34장 16절에 씌어 있습니다. 짝이 맞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전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있으면 무식한 자입니다. 성경을 똑바로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이긴자에게 새벽별을 준다 고 씌어 있죠? 묵시록 2장 26절로부터 28절에 씌어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철장을 가지고 만국을 다스린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철장은 영의 철장으로 이 사람의 말씀 자체가 철장입니다. 이 사람에게서 나오는 말이 바로 철장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의 말이 나가면서 이단과 참진리를 분별해서 쫓겨주고 있습니다.

죽음의 열매를 맺으면 그것은 무슨 나무입니까? 죽음의 열매를 맺으면 사랑의 신, 마귀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다 꼭 죽으므로 예수가 마귀 나무입니다. "그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안다"고 예수가 말을 했습니다. 내가 볼 때에 예수는 바른 말을 한 것이 더러 있습니다.

내가 시키는 대로 행한 것은 전부 죄입니다

성경에 '나를 항상 버려라'는 말씀을 모르는 기독교 신자들은 없습니다. 죄인입니까 버려라고 씌어 있는 것이고, '나라는 의식'이 죄라고 씌어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



구세주 조희성님

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죄라는 것이죠, 욕심 자체가 욕심을 부립니까? 내가 욕심을 부립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의식'의 가지가 욕심이고, 나라를 것이 바로 죄라는 뜻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가 바로 마귀 종이라고 씌어 있습니다. 욕심은 마귀 새끼고 나라의 의식은 바로 마귀입니다. 성경 말씀은 영적 말씀이므로 선악과를 먹고 죽었으니까 선악과는 죽이는 과일인데 영적 말씀이므로 영이 되는 것입니다. 즉, 선악과는 죽이는 영입니다.

다. 해석을 하려면 이렇게 똑바로 해석을 해야 성경해석이 됩니다. 덮어놓고 선악과라고 무슨 복숭아나 어떤 과일처럼 생각한다면 그것은 성경을 바로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말씀이니까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선악과가 영이니까 바로 죽이는 영이다, 죽이는 영이니까 마귀다! 이것이 답입니다. 승리제단 나온 사람은 죄가 뭔지 똑바로 알고 선악과가 뭔지 똑바로 알았으면 죄를 안 져야 합니다. 내가 시키는 대로 행하면 전부 죄입니다. 잘난 척하고 내가 쌀 백 가마를 고아원에 갖다

바치면 그것이 의가 될까, 죄가 될까? 내가 행하는 것은 다 죄가 된다는 사실을 기독교에서는 모릅니다. 죄가 뭐 줄 모르고 죄를 만날 평평 지으니 안 죽을 수 없습니다.

심판 날에 하나님을 위해 행한 공로가 있어야 불구덩이에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엄청난 죄를 짓고 있는 것이 사이비 종교단체입니다. 오늘날 진짜로 이 사람이 알고 보니까 땅을 치고 통곡을 할 지경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밭실 안에서 땅을 치고 통곡을 여러 번 했습니다. 이 사람이 밭실에 들어갔을 때에 그 사실을 깨닫고 땅을 치고 통곡을 한 두 번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되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하려면 나를 짓어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살면 절대 하나님이 안 되고 꼭 죽습니다. 십년, 이십년, 오십년 있다가 죽든지 꼭 죽습니다. 죽을 짓을 하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초창기부터 말한 말이 지옥 가는 것도 제 발로 가고 천당 가는 것도 제 발로 간다고 그랬죠? 누가 때밀어서 가는 것이 아니고 각자가 제 발로 가는 것입니다. 지옥을 목표 삼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영생을 향해서 가는 사람은 목표가 영생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영생하고 맙니다. 영생을 얻으려나?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내 모든 것을 다 바쳐서라도 영생을 이루려고 할 것입니다. 영생을 목표 삼으면 그렇게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생을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움츠러들고 현금도 안 하고 십일조도 안 내고 월정현금도 안 내고 그러지, 그것은 지옥을 향해서 그냥 곧바로 가는 것입니다.

"나, 하나님을 향해서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하고 심판 날에 꼭 물겠지? "나, 하나님 위해서 그 동안 한 것이 무엇이냐?" "나, 영생 얻으려고 왔지, 너 한 것이 뭐야,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어" "한 것이 없습니다." "한 것이 없으면 이쪽으로 가~ 불구덩이로 들어

'나라는 주체의식'이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너희는 하나님 안에서 행하라"라고 했습니다. 즉 그것은 너희들은 마귀 안에서 행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마귀 안에서 행하고 있다는 것은 '나라는 주체의식'이 마귀가 되어 '나라는 주체의식'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고 있으므로 하나님이 답답하여 "하나님 안에서 행하라"는 말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행하라"는 말은 너희들은 마귀 안에서 행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가!" 안 들어가겠지? 그런데 밀어 던지는 것이 아니라 집어서 던져 버린다고 심판 날에 이루어지는 광경을 기록해 놓았고 불경에도 하늘의 조씨가 인간들의 모든 중생들의 죄를 기록해놨다가 그날에 전부 심판한다고 했습니다.*

2001년 1월 15일 말씀 중에서



전쟁터로 배치되는 소모장교로 임관되다

군업무 시간이 끝나면 연대 내에서 전쟁과 가난 때문에 학교 교육을 받지 못한 사병들을 불러 모아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혹독한 훈련이 끝나갈 무렵, 군 인력 담당 부서에서는 전 훈련병들 가운데 대학생들과 고졸자들을 모아 놓고 행정 요원 300명을 뽑는다고 특채공고를 하였다. 특별히 좋은 보직에 임용할 자리를 뽑는 것인 만큼 희망자는 응시하려고 부추겼다. 그 말을 사실로 믿는 수 천 명의 사람들이 응시하였는데 이 사람도 그 중에 있었다. 시험에 응시해서 보니 1등으로 합격이 되었다.

그렇게 300명의 합격자들을 데리고 간 곳은 전남 광주에 있는 상무대 장교훈련소였다. 당시는 전사라 소위(少尉)는 전방에서 거의 다 죽어 나갔으므로 '소모장교'라는 얘기가 나돌아 대부분의 청년들이 장교 되기를 거부하던 때였다. 이를 감쪽같이 속이고 고교인재들을 장교로 활용하고자 했던 것이다.

300명의 합격자들은 원치 않는 장교 훈련을 받게 되었다. 신병훈련이 끝난 상태에서 추가로 추운 겨울에 갑종장교 후보 87기로서 사병 훈련보다 몇 배 고달픈 장교 훈련을 받게 되었던 것이다. 전시 상황에서 장교 훈련과정은 일반인으로서의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인내를 요하는 것이었다. 숲한 죽음의 고통과 맞바꾼 것이라면 상상이 될 것이다.

마침내 극한의 장교훈련 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소위 임관이 되었다. 다른 동

료들은 거의 일선 소대장으로 배치를 받았지만 이 사람은 훈련 성적이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특출했으므로 신임 소위로서 대대 작전과장으로 보직받령을 받았다. 그곳은 포천군 사창리에 있는 28사단 82연대 3대대였다. 자대에 배치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전쟁은 끝나게 되었고, 정식 군인이 되어서 전투 경험을 쌓지는 못 하였다.

이 사람은 작전과장으로서의 소임을 성실히 수행하면서 틀나는 대로 사병들에게 포로로 끌려가면서 당했던 경험을 토대로 공산주의의 허구와 악랄함의 정체에 대해 정신 교육을 해 주었다. 이러한 것이 상부에 인정되어 이 사람은 소위 계급으로서 중·소령이나 담당하는 연대 정훈과장으로 발령이 났다. 그때는 교량이 그리워 탈영하거나 고된 병영 생활을 이기지 못하여 월북하는 사병들이 많을 때였다. 정훈과장으로서 연대 전 사병들을 상대로 직접 포로가 되어 빨갱이들에게 당한 경험담과 공산주의 이론의 허구성에 대해 실감나게 설명해 주니 월북하는 사병들의 수가 급격히 줄어드는 성과를 올리게 되었다.

그리고 업무 시간이 끝나면 연대 내에서 전쟁과 가난 때문에 학교 교육을 받지 못한 사병들을 불러 모아 중·고등



조희성 선생(사진 중앙 좌측 의자에 앉아 있는 분)이 학생들과 찍은 사진

학교 교육과정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다른 장교들은 주말이면 영화 보러 간다, 서울 놀러간다 하는 분위기가 팽배할 때다. 그렇지만 이 사람은 군대에서 고생하는 사병들과 지내다보니 그들의 어려움과 고통을 덜어주고자 하는 마음이 절실했다. 그래서 어떻게든 공부를 가르쳐 그들의 앞길을 열어주고자 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소문나기 시작하자 공부를 하려는 사병들이 몰밀듯이 밀려들어 북새통을 이루었다. 그런 가운데 82연대 정훈과장이 공부

못한 사병들에게 공부를 가르치는데 그 효용도가 매우 좋다는 소문이 사단장에게도 전달되었던 모양이었다. 어느 날 사단장이 이 사람을 불러놓고는 "자네, 소원이 뭐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도와주겠네."라고 하는 것이었다. "제게 소원이 있다면, 장교로서 맡은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고 남은 시간에 사단 내에 전적으로 인해 교육을 받지 못한 사병들에게 공부를 가르쳐주고 싶은 것뿐입니다." "그게 소원인가? 음, 그러면 자네를 사단 중·고등반 책임

장교로 임명할 테니 사단 내의 공부 못한 사병들을 가르쳐 주게."

이렇게 해서 근무 시간에 사단 내 군인들을 가르치게 되었는데 이것이 인근 민가에까지 소문이 나면서 민간인 청년들도 몰려와 자기네들에게도 공부를 가르쳐 달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사단장의 허락을 받아 근무 시간이 끝나면 부대 밖에 나가 민간인 학생들도 가르치게 되었다.

젊은 장교시절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누리고 싶은 것도 많은 때에 오직 전쟁으로 인하여 배움의 기회를 잃은 젊은 이들의 앞길을 열어주는 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던 것이다.

볼의를 못 참는 성격의 소유자

한편, 28사단 관할 지역 내 야산에는 울창한 나무가 많이 들어서 있었다. 사단에서는 필요한 사단 건물과 집지 등을 짓기 위한 나무를 마련하기 위해 인근 산의 나무를 벌목하기로 했다. 그런데 그 작업을 맡은 책임자들이 하나같이 나무를 시중에 내다 팔아서 착복하는 부정이 일어나서 골칫거리가 되어 있었다.

그래서 사단장은 부정을 하지 않을 만한 깨끗한 책임자를 물색하느라 고심한

끝에 이 사람을 책임 장교로 임명하였다. 그리하여 현지에 파견되기에 이르렀다. 부임하자마자 그 곳을 담당하는 선임하사가 하는 말이 "장교님 같은 분은 이런 고생스러운 데 안 오셔도 됩니다. 우리가 다 알아서 일을 처리할 것이니!" 하면서 방을 하나 얻어 주면서 편히 있으라고 권했다.

그리고는 며칠 후에 난데없이 돈봉투를 갖다 주는 것이었다. 이게 무슨 돈이냐고 추궁하니 나무를 내다 판 돈의 일부라고 대답하는 것이었다. 이 사람은 원래 불의라면 조금도 타협하지 않는 성격이었다. 그래서 당장 그 돈의 출처를 파악하여 그 돈이 부정부조로 마련된 돈이며, 선임하사가 주도해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확인한 후, 즉각 선임하사를 영창에 보내도록 사단장에게 강력히 건의하였다.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부터는 이 사람이 직접 벌목작업을 지휘하고 감시하여 이후부터는 한 치의 부정이 없게 하였다. 사단장은 이 사람을 불러 그만한 일로 선임하사를 영창에 보낼 것까지 있느냐고 만류하였지만, 이 사람은 끝내 고집을 꺾지 않았다. 이 일로 인해 사단장은 이 사람을 더욱 깊이 신임하게 되었다.*